

# 아파트 111세대 분양에 9명 청약 '처참한 성적표'

### 올해 첫 분양부터 고전...한양립스, 낮은 분양가에도 0.08대 1 기록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재개발 구역 등 청약 일정 미룰 가능성 높아

올해 첫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에 나선 단지가 청약 통장 9개를 접수하는 데 그쳤다. 도심 외곽이라는 점과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단지라 하더라도 최근 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25% 가량 낮은 분양가로 분양에 나섰지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해 첫 분양 단지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건설사들의 관망세가 지난해보다 더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등도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에 좀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일 진행된 한양립스 에듀포레(광주시 광산구 하산동 269번지 일원)의 1순위 청약 결과, 111세대 모집에 9명만 청약에 나섰다. 경쟁률로 따지면 0.08대 1로, 주택청약이 전부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약이 무의미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단지는 광주 도심 외곽이라는 점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좋은 조건의 물건을 차지했다는 점이 일반분양자들 입장에서 단점으로 작용했지만, 평당 1515만원이라는 최근 광주지역 평균 분양가(약 1920만원)와 비교하면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운 만큼 어느정도 분양 성적이 기대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쉽사리 청약에 나서지 않았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운양산공원 진아리채 그

량부 이후 광주에서 5개월여만에 분양에 나선 곳이다.

새해 첫 분양 단지의 저조하다 못해 참혹한 분양 결과에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마저 우울해지면서 좀처럼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 못하고 있다. 당장 광주지역 주택 미분양도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41호로 전달과 같았다. 악성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또한 전달과 같은 415호로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광주에서 착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2월 6887세대가 착공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연간 착공 호수도 4082호로 전년(1만3313호)의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 부동산 경기를 이유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거나, 분양을 미루는 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분양에 예상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를 비롯해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 구역도 청약 일정을 늦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모집 공고 기준으로 이번 달 전국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사한 결과, 광주의 예상 분양 세대는 620가구로, 부산(1436가구), 대전(952가구), 울산(899가구), 대구(755가구) 등과 비교해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6일 예수금 30조원 달성 기념식에서 이광일(왼쪽 여섯번째) 농협전남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농협전남본부, 상호금융 예수금 30조 달성

### 상호금융 운영 노력 결실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6일 농협상호금융 예수금 달성탑 수상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예수금 3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남농협은 지난 2021년 상호금융 예수금 25

조원을 달성한 이래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말 30조원을 달성했다. 이는 농협을 사랑하는 고객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임직원들의 노력이 함께 맺은 결실이다.

농협전남본부 이광일 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농협을 믿은 고객들의 적극적 이용과 임직원들

노력이 함께 맺은 결실"이라며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농협은 농업인 우대금리, 영농자금,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광주·전남 주식거래량 1위 'SK하이닉스'...거래액 19조146억원

### 1월 주식거래액 5조4612억원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이 지난달 가장 많이 사고 판 주식은 'SK하이닉스(19조146억원)'로 장기간 1위 자리를 지켰던 '삼성전자(18조6465억원)'를 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5조1505억원)'가 1위로 떠올랐다.

6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5년 1월 광주·전남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이 한 달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개업에 이은 대통령 탄핵 정국 등 대

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투자자 역시 주식 거래를 대폭 줄였지만, 지난달 정치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 및 외국인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주식 거래대금 상승폭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 대금은 5조4612억원으로 전월(5조1747억원) 대비 2865억원(5.5%)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모두 매수와 매도 대금이 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1조6346억원으로 전월(1조5032억원)보다 1313억원(8.7%) 늘었다. 매도거래대금은 1조5176억원에서 1조6093억원으로 917억원(6.0%) 증가했다.

코스닥에서는 지역 투자자들의 매수거래대금이 전월(1조782억원)보다 3.3% 증가한 1조1143억원을, 매도거래대금은 2.5% 늘어난 1조1030억원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수거래대금과 매도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0.75%, 0.74%를 기록해, 전월에 견줘 0.07%포인트(p)와 0.05%p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 38주 연속 하락

### 지난주보다 0.03%↓...전세는 상승세 지속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오르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2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견줘 0.03% 하락했다. 전주(-0.05%)보다 하락폭은 완화됐지만,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격 하락세가 38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남구(-0.07%)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동구 -0.05%, 서구 -0.04%, 북·광산구 -0.02% 순이었다.

전남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01% 감소했다.

반면 광주의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남의 전세가격도 0.01% 올랐다.

한편 서울 아파트는 5주 만에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2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보합세에서 0.02% 상승, 전환했다. 다만 수도권 나

마지 지역인 인천(-0.08%) 경기(-0.03%)는 모두 내렸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보합 전환한(-0.01%→-0.00%) 가운데 서울(0.00%→0.01%)은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는 상승 전환했다"며 "다만 서울 안에서도 상승과 하락이 혼재돼 있어 서울이 확실한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 중진공,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10~21일 ESG통합플랫폼 신청 사업화 최대 2억·실증 6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탄소중립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탄소중립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사업화'와 '실증' 두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사업화'는 특허권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 및 정부 R&D 성공 판정 등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실증'은 구매조건부 계약서 등을 가진 기업으로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이면 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사업화의 경우 컨설팅, 제품 개선, 인·검증 등 기업당 최대 2억원, 실증은 설비구축, 성능검증 등 기업당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10~21일 중진공 ESG 통합플랫폼(<https://esg.kosme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